

사도행전의 신학 내용정리

* 이 정리는 예르벨(Jacob Jervell)의 사도행전 신학(Theology of the acts of the apostles)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주에서 굳이 몇 페이지에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다.

** 이 페이퍼는 두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책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요약 정리는 전체 책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친 유대적인 누가의 신학들을 기술한 제1,2,3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예르벨의 "사도행전" 신학에 대한 나의 평가와 의문점들과 지적들을 밝혔다.

1

"사도행전 신학"의 요약정리

제1장 저자와 자료들

저자의 문제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는 저자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비록 빌레몬서 24절,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언급된 바울의 동역자 '누가'(Λουκᾶς)가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1)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저자라면

왜 바울의 전기(傳記)에서 주용한 것들을 실수하고 있는지, (2) 바울의 신학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초보적으로만 언급하고 자세한 용례가 없는지, (3) 왜 누가가 바울서신을 인용하지 않았는지와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에도 불구하고, 예르벨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예르벨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평가한다. 예르벨이 지적한 그 정보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바울서신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바울의 전기에 대해서 여러정보를 제공한다, (2) 바울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도직령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저자의 주된 관심

누가의 주된 관심은 교회를 참된 이스라엘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관심을 유대교적으로 설명한다. 예르벨은 사도행전이 A.D.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시기의 기독교는 유대교와 독립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 기독교"이다. 예르벨은 유대 기독교의 고향을 회당이라고 확신한다.

(1) 사도행전의 강한 유대적 특성과 더불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2) 성서의 해석에 일정부분을 할애하는 노력을 보였고, (3) 율법을 지키는 사도인 바울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를 참된

이스라엘로 제시하는 수단으로 이같은 세가지의 측면을 주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의 자료들

예르벨은 (1) 성서, (2) 누가가 기록한 것, (3) 구전전승, 이 세가지가 누가가 사용한 자료들이라고 주장한다. 예르벨은 비록 이러한 자료들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크게 보아서는 자료들을 단 두가지 단위로만 구분한다: (1) 성서, (2) 성서 이외의 것들.

예르벨이 두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성서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자료이며, 이미 기록된 자료이며 유대인의 전통상 성서의 내용은 변개가 불가능하므로 누가가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 성서본문이 아닌 다른 자료들은, 그것이 누가 자신의 글이던, 아니면, 초기 교회시대에 유래한 구전전승들이던 간에 누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시 쓰여졌고, 누가 자신의 표현양식과 누가의 언어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의 독자(배경)

사도행전의 독자는 유대인이다. 비록 사도행전이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사도행전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독자인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교인들일 수도 있겠지만, 동포인 유대인으로부터

차별당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므로 수신자는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라고 말할수 있다(p.48).

- (1) 기독교가 독자들에게 잘 알려졌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있다.
- (2) 유대인의 용어들과 명칭들 관습들을 아무런 설명없이 말하고있다.
- (3) 셈족주의, 아람주의, 헤브라인즘이 드러난다.
- (4) 70인역(LXX)을 자주 인용한다.
- (5) 율법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6)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ὁ θεός τοῦ λαοῦ τούτου Ἰσραήλ)을 구별한다.
- (7) 바울을 영원한 바리새인으로 소개한다.
- (8) 회당에서 변증한다.
- (9) 회심하는 대다수가 유대인들이다.

제2장 목적과 역사적 배경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1) 자신의 메세지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동포인 유대인으로부터 억압과 박해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배운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 또 (2) 억압과 박해 속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막기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더불어서 (3)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들 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적 노력의 당위성을 보여주려는 것, 그리고 (4) 바울을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사도로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르벨은 이러한 목적들의 결과로 궁극적으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진정한 유대교"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3장 사도행전의 신학

하나님과 그의 백성

누가는 (1)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2) 성서에 예언된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조상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다.¹ 그러므로 예수 사건 (탄생, 기적, 죽음, 부활)과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데에 매우 노력하였다. 이방인의 선교에 관하여, 예르벨은 교회에 수용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회당에 이미 받아들여진 자들" 이라고 주장한다. 이방인을 개종자들로 이해한 것이다.

1. cf. 행 3:13,25; 4:25; 5:30; 7:11,12,15,19,32,38,39,44,51,52; 13:17,32,36,; 15:10; 22:14; 26:6; 28:25.

그 백성을 위한 메시아

누가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고, 이 구원은 그와 동일한 백성 출신의 메시아로부터 온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1)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모세 오경을 회복하는 이로, 그리고 (2)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희망-성취"라는 구도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모세나 예언자들과 같이 고난 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전하고,² 동시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대교적인 누가의 신학은 예수를 절대로 하나님 자신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설명한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예수는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것은 모든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활동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리된 백성

누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할 때에는 지적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쇠퇴와 위기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들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반대와 항상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백성들의 죄악의

2. 오직 누가만이 기독교론의 중심 사건들인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성서의 증거들을 통해서 묘사한다 (행 2:24ff., 30ff.; 3:18ff.; 4:10ff.; 13:33ff.; 17:2ff.; 26:22f.; 눅 18:31ff.; 24:26ff., 44ff.).

절정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사건을 놓고 분리된 백성이 된 것이다.

예르벨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거절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분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성전을 자주 방문하고 조상들의 관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는 (1)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2) 이스라엘의 회복을 희망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성령의 백성들

누가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있었다.³ 더 나아가서, 누가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지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누가의 관점은 성령이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성령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곧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라는 것이다.

3. 행 1:4; 눅 24:49

율법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호하다. 누가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초대 기독교는 율법을 테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모세를 거절했다고 누가는 항변한다. 누가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징표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격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의 준수여부였고, 이러한 입장에서 누가는 이방인일지라도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하지 않았다. 누가는 율법뿐 아니라, 조상들의 관습에도 호의적이다.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적인 생활 방식이 율법과 조화를 이룬다고 확신한다.

성서

교회의 합법성은 오직 성서를 수단으로 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았다. 성서를 (1) 직접 인용하거나, (2) 성서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를 요약 언급하거나, (3)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초대교회의 역사와 정당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도구로 이용한다.

이러한 성서 가운데에서 누가는 그 중심을 예언적인 측면에 둔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과거 (영원전부터)부터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말해왔다는 것이다.

(1) 누가는 특별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또 성령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말한다. 예언자로서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윗에게 예언적인 요소와 메시아적인 요소가 결합되었고, 예수는 이 전통을 승계한 것이다).

(2) 모세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에 대한 중요한 증인이다. 그는 율법을 준 사람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자이다.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 모두가 알고 있는 모세의 예언자적인 이미지에, 사도행전 3:22-23; 7:37에서 신명기를 인용하며 모세가 동시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소개한다. 따라서 율법은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바울, 이스라엘의 교사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회당과 유대인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변론에 있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회당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기도 했다. 청중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대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유대인이 불순종한 결과이지 그것이 애시당초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사이고, 이 선교와 결합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선교를 한 사람으로 누가는 기술한다.

한편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그가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철저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부활신앙은 유대교의 예배의 핵심이며 이스라엘의 구별된 표시이다. 누가는 바울이 재판관을 받게 된 것이 바울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면서 유대교의 선교사인 바울의 정당성을 에둘러 증거한다.

구원

예수 사건의 중요성의 으뜸은 "구원"이다. 구원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선물"이다. 누가는 이 구원의 특권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었다고 선포한다. 이 구원의 모양은 대체로 병을 고치는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에게로 있으나, 치유자로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이양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비록, 누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에 대한 속죄로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이 구원계획이 맞물려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설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라고 밝힌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요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죄의 용서"를 말한다.

제국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사도행전의 청중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지 결코 로마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제국의 권력을 옹호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는 로마 사람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유대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누렸던 합법적인 지위를 교회도 누리기 위해서이며,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전정한 계승자로 로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 임한 마지막 날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언제 그 왕국이 임할 것인가'보다는 '그 왕국의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왜 지연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는다. 종말론을 다루면서 누가는 종말이 (1) 이미 성취된 것들과 (2) 장래에 성취될 것들을 모두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종말론을 강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종말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고, 그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신학"에 대한 나의 평가와 의문점 두가지

예르벨은 사도행전이 유대교와는 분리되려고하는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 교회들의 산물이라는 종래의 견해에 반대해서 그 유대교적인 바탕과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초기 기독교를 증거하고자하는 노력을 하였다. 특별히 이 책의 3장에서는 "사도행전의 신학"이라는 소주제 아래에서 유대교적인 근거와 친 유대교적인 사도행전의 신학을 잘 설명하고 있다.

예르벨에 의하면, 사도행전의 주된 독자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누가 말하고자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1)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2) 이스라엘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을 잘 준수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3) 비록 유대인일 지라도 그 율법을 따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고, (4) 이방인일 지라도 그 율법을 준수하면 이스라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5) 기독교가 진정한 유대교라는 것이다.

예르벨의 이러한 지적들과 이 지적들을 뒷바침하는 유대교적인 근거들은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 안에 있었던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의 신학적인 바탕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르벨의 약점들도 드러난다. 나는 여기에서 두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한다.

(1) "이방인"에 대한 문제

예르벨은 "이방인"을 정의하면서,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닐 지라도 교회에 수용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며 동시에 회당에 받아들여진 자들이다"라고 정의한다 (51, 79).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방인 선교"는 실제로 유대교도, 그리고 초기 기독교도 모르는 순수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아니라,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로 들어온 이들을 이방인으로 지칭하여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르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예르벨은 *ἔθνος* 와 *προσῆλυτος*의 차이를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ἔθνος* 는 "사람들"로도 번역이 되지만, 신약성서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킨다. *ἔθνος*가 유대인으로 가리킬 때에는 *ἔθνος*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유대인"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될 때 뿐이다 *ἔθνος τῶν Ἰουδαίων* (cf. 행 10:22).

반면에 *προσῆλυτος*는 "개종자들 (유대교로 들어온 자들)"로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나 (*ἔθνος*),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만약 예르벨의 주장대로 *ἔθνος*가 두 종교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모두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순수한 이방인 아니라,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미 유대교 회당에서 받아들여졌던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이었다면, 누가 *προσῆλυτος*라는 말을 몰랐어야한다. 그러나, 그는 *προσῆλυτος*라는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행 2:11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장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유대인과 대비하여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개종자)을 가리키는 용어로 *προσῆλυτος*를 사용하고 있다. 행 6:5에서는 일곱명의 일꾼을 선택하면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콜라 역시 *προσῆλυτος*로 유대인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행 13:43에서는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 역시 *προσήλυτος*라 지칭하고 있다.

이미 *ἔθνος* 와 *προσήλυτος*의 용례를 다 알고 있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 단어들을 혼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만약에 '순수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유대교에 들어온 비(非)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정의하는 예르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사울을 예고한 예수님의 말은 *πορεύου, ὅτι σκεῦος ἐκλογῆς ἐστίν μοι οὗτος τοῦ βαστάσαι τὸ ὄνομά μου ἐνώπιον ἔθνῶν τε καὶ βασιλέων υἰῶν τε Ἰσραήλ* 이 아니라, *ἐνώπιον προσηλύτων τε καὶ βασιλέων υἰῶν τε Ἰσραήλ*로 고쳐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행 9:15는 *προσηλύτων*이 아니라, *ἔθνῶν*를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가 진정한 유대교인가?

예르벨은 기독교의 궁극적 목표가 "기독교가 진정한 유대교"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50). 그러나, 기독교를 진정한 유대교로 보기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근본적인 정신을 계승하였을 뿐, 이미 유대교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알수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할례"에 관한 논쟁이다.

예르벨이 지적한 대로, 율법-성서이든지,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이든지 간에-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이고,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약은 "할례의 계약"이다 (104). 예르벨에 의하면, 율법준수의 원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방인에게 까지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할례였다.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할례 받은 신자들을 강조하면서 초대 기독교가 아브라함의 계약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행 10:45).

그러나, 행 15의 바울의 변론은 이미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유대교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할례의 계약을 깨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할례가 '이방인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 15:19). 그렇다면, 비록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근거한 뿌리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 지언정, 율법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교의 범주에서는 이미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르벨은 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이방인 선교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106), 이방인일 지라도 율법 안에 있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미 율법에 벗어난 "할례 논쟁"과 "식탁 논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르벨에게 있어서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 "할례 논쟁"과 "식탁 논쟁"은 피해가고 싶었던 주제였을 것이다. 비록 할례의 논쟁은 '성령'으로, 식탁 논쟁은 '환상으로 통한 하늘의 소리'로 피해가고 싶겠지만, 이미 이 둘을 중요한 율법 준수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초기 기독교를 진정한 유대교로 보며, 그 근거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철저한 율법 준수와 이스라엘에 주어진 계약들의 준수로 보려는 예르벨의 주장은 재고되어야한다.